

장흥, ‘치유·쉼’ 편백숲 우드랜드 눈길

참여형 산림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랑의 오솔길 등 야간경관 조성
소상공인 연계 특산식품 판매도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치유와 쉼을 테마로 한 다양한 산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우드랜드는 참여형 산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랑의 오솔길을 비롯한 창의적 야간

경관을 조성했다. 특히, 산림치유, 유아숲, 숲해설 분야의 산림체험 프로그램에 총 1,184회 1만 2,470명이 참여하며 우드랜드의 자연경관과 계절 맞춤 활동을 즐겼다. 우드랜드는 톱밥산책로와 같은 테마 산책로 일대에 맥문동, 꽃무릇, 국화과 같은 계절감 있는 초본류를 심었다. 이를 바탕으로 8~10월, 작년 동월 대비 3만7,000명 이상 관광객 동원에 성공했다. 웰빙·행복·건강이란 테마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웰니스 대한민국 58선 관광지’에 5년 연속 등재되는 성과도 거뒀다. ‘2023년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을

맞아 우드랜드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모든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군비 3억과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한 야간 경관사업을 진행해 우드랜드의 야경과 숲속 생태계를 소개, 산책로 정비로 통해 장흥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중인 75억 규모의 농촌테마공원은 한방·약선체험장과 전통황토길, 수국정원을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특산식품 판매소를 운영한다. 어린이체험원, 목재장난감, 예술품 등이 구비된 목재문화전시관에 양무새와 같은 동물 먹

이체험 프로그램을 시범도입한다.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중심의 관광객을 겨냥한 숲마루 과학관과 놀도피아 사업을 계획 중이다. 우드랜드팀에 소속된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우드랜드의 예술, 체험중심 이미지 변신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편백숲 우드랜드는 놀이와 체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덧입혀 장흥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것”이라며 “우드랜드의 변화·발전을 바탕으로 장흥군 관광객 500만명 유치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구례, ‘평생학습도시’ 지정 취·창업 교육 인구유출 방지

구례군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생학습 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를 말한다. 군은 옛 매천도서관을 평생학습 허브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건축설계 중이다. 평생학습 허브센터는 30개의 마을학교 지정, 300명의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해 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할 평생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군은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마다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포함한 평생학습 마을 학교와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평생학습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획도 세웠다. 청년과 시니어,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인근 대학과 연계해 전문 취·창업 교육을 실시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사업별 학습동아리 조직, 맞춤형 직업교육, 각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학습 축제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선순환 평생학습 체제도 구축한다. /구례=손석봉 기자

고흥, 드론 중심도시 위상 제고 힘쓴다

5월부터 녹동향서 드론쇼

고흥군이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 제고와 고흥관광 1,000만 시대 달성을 위해 관광객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 삼아 화려한 녹동향의 밤하늘을 드론 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녹동향 드론쇼는 오는 5월부터 7개월간 녹동향 일원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저녁 9시 1차례 10분간 드론 500대 규모 군집 드론쇼가 펼친다. 특히, 드론쇼는 고흥과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해 녹동향 야간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계절별, 기념일별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토요일 밤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규모 군집 드론쇼는 민선 8기 군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이며, 고흥에서 처음 선보이는 최대 규모 드론쇼가 될 전망이다. 군민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녹동향 드론쇼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시기와 맞물려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동 장어거리 주변 상상한 해산물과 풍부한 먹거리까지 더해 고흥관광 및 지역상권 경제 활성화 등의 낙수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 밖에도 오는 9월에는 고흥항공센터 일원에서 제1회 드론·UAM 엑스포를 개최해 UAM 비행시연 등으로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흥=진중언 기자



고흥 드론쇼

/고흥군 제공

조합장선거 혼탁 뿌리 뽑아야

기자수첩



진중언 국장
제2사회부 (고흥)

매관매직,왕조시대 부정부패 대명사의 사자성어다.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력은 안되고 능력은 부족하다보니 돈으로 직업을 사고파는 것이다. 최근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행태나 방법만 다를 뿐, 돈이 오고 가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승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서로가 목인아래 식사제공은 일상적 선거법으로 당연시 되면서 선거운동의 기본적 행위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금품살포다. 후보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적당금액의 돈을 주고 유권자는 그 대가로 표를 준다. 당선되면 결과적으로 돈을 주고 자리를 사게 되는 꼴이다. 당선자는 막강한 권한과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 4년이란 직장을 갖게 된다. 이것이 민주적 선거가 낳은 ‘매업매직’이다. 불법선거로 당선된 이들의 특징은 ‘결려도 당선만 되면 된다. 비용이 들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까지 시간만 끌면 4년이란 임기는 채운다’는 식의 연약한 선거법을 비웃고 있다. 모든 선거의 부정부패 온상의 뿌리가 조합장 선거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선거때면 돈맛에 길들여진 유권자들의 낮은 의식도 문제다. ‘돈 안주면 누가 투표 한단가’ 한 조합원의 기괴한 권리행사의 민낯 발언이다. 여기에 온갖 특정 폐거리집단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갈등과 혼탁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모양새다. 도전하는 후보가 돈을 안 쓰면 이유 불문 낙선이다. 현직보다 많이 써야 당선 가능하다. 후보들이 수억 원을 쉽게 뿌릴 수 있는 데는 당선만 되면 임기 안에 비용회수가 가능한 유혹적인 조합들의 내부운영체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조합장선거법의 단순 제도적 개선이나 보안으로는 부족하다, 조합들의 운영체제 등 전반에 걸쳐 정부차원에서 혁신적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먹을 것이 없으면 동물도 모이지 않는다. 평균 3억 이상 5억 넘게 뿌렸다는 후문이고 보면, 승리에 도취된 인사들이 어떻게 본전을 뽑을지 사뭇 궁금해진다. /여수=곽재영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김광태·박형문씨, 구례군에 고향기부금

재경구례군향우회 김광태 회장과 구례장학회 박형문 이사장이 구례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지역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최근 열린 2023년 구례학사 입학식 및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기탁금 전달식에서 김광태 회장과 박형문 이사장은 각 500만 원씩을 구례군에 기탁했다. 김 회장은 토지면 출신으로 현재 ㈜반도TS 대표를, 박 이사장은 구례읍 출신으로 ㈜녹십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두 기부자는 “구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주)원영, 장흥군에 인재육성장학금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성)는 최근 (주)원영에서 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주)원영의 이동원 대표이사는 꾸준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기탁, 순천대 대학발전기금 기탁 등 교육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지역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장흥향우인 지인의 권유를 받아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을 결정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 지원 협약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최근 광양시청 2층 접견실에서 광양시 청년들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광양시와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양시의 주관 하에 농협은행, 신한은행, 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한 다자간 협약으로 진행됐다. 한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광양시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3%의 주택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주택 구입자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우성진 기자